

목포시 브랜드 마케팅 성과...도시 위상 높아진다

근대역사문화·맛의 도시·슬로시티·가을문화축전 알리기 박차 섬의 날·혁신박람회 등 대형행사 앞두고 전국적 '핫 플레이스'로

민선 7기 출범 1년여 만에 목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목포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초 '지방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일대가 이슈화되면서 전국적인 핫 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탄 것이 출발점이다.

지난 4월에는 목포 식재료와 음식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갖고 목포의 맛을 브랜드화하고 관광 상품화하는 첫발을 내딛었다.

이달에는 목포시가 지역화·차별화·고급화·브랜드화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점 추진해 온 국제슬로시티에 가입된다.

지난 4월 이탈리아 국제슬로시티연맹 관계자 등 국제평가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21일 이탈리아 올리베티에서 열리는 총회에 김종식 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정서를 받는다.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되면 세계적 브랜드인 슬로시티 로고마크를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사용해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관광객 증가 효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선 15개 지자체가 지정됐다.

또 이달 들어 용해동 옛 목포경찰서 부

지에 통일부 산하 기관인 통일센터, 법무부 산하(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기관인 스마일센터,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등 3개 기관을 유치한 것도 목포시 위상제고에 따른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목포 브랜드 마케팅의 가시화는 오는 8월 절정에 달한다.

8월 3일부터 11일까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U-15 여자 축구대회'가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 홍콩, 몽골, 마카오, 괌, 등 10개국 선수단을 비롯해 협회 관계자, 심판 등 250~300명이 공식 참가한다. 북한의 참가가 결정되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차원 행사인 '제1회 섬의 날 기념 행사'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목포에서 개최되는 단일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참석 인원도 VIP(잠정)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50여개가 넘는 지자체, 정부 유관기관, 기업 등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 제1회 섬의 날이 갖는 의미는 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풀어놓을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오는 8월 8일 처음 열리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삼학도의 모습. 목포에서 개최되는 단일 행사로는 최대규모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드론 촬영>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섬 박람회는 막연한 개념으로 경제측면에서 실익이 없고, R&D 기능을 수행하는 '섬 발전진흥원' 보다는 사업 수행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 개념의 가장 '국립 섬 개발청'을 목포에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전국 도시재생사업 롤 모델의 첫 시험대가 될 '제1회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달·만호·목원동 등지에서 개최된다.

전남의 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총리·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22개 시장·군수, 유관기관장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번 박람회가 전국적 관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수 십 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해 부스로 사용하는 기존 박람회와 달리 원도심 일대에 방치된 빈집과 빈 상가를 22개 사·군 부스로 활용해서다. 벌써부터 '지방 없는 박물관, 텐트 없는 박람회' <광주일보 5월 28일자 11면 보도>로 이목이 집중되

고 있다.

8월 이 같은 3차례의 대규모 행사이후 곧바로 '목포 가을 문화예술 축전'이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원도심권·평화광장·북항 노을공원 등 지시 펼쳐진다.

8주 동안 항공축제, 목포야행, 세계 마당 페스티벌 등 규모가 큰 행사에서부터 공연·전시·문학 등 소규모 행사가 이르기까지 모두 162개 행사가 진행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예산 이월·집행 잔액 큰폭 증가

관행적 과다 편성 등 비효율

목포시의 예산 이월과 집행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298억1200만원과 128억72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관행적인 예산의 과다편성, 적기 예산집행 태만, 추경 시 소극적인 감액 결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산 운용 시스템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월액 가운데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고이월은 건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2017년 84건에 243억9300만원이었으나 2018년엔 162건에 442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사고

이월은 2017년 59건에 100억원 규모였으나 2018년 60건에 60억원으로 감소했다.

명시 이월된 주요 사업은 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희망근로 지원 사업,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이다.

또 고하도 힐링 랜드 조영시설 설치공사와 근대역사이야기 공원 조성 사업,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 등은 사고이월 됐다.

이에 결산감사 위원들은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보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사를 실행할 것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328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199억 8700만원 대비 128억 원이 늘었다.

이 같은 집행 잔액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로,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해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립예술단 시민 속으로...7개 팀 18곳서 행복콘서트

6·7월 매주 두차례공연

목포시립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콘서트 투어에 나선다.

10일 목포시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에는 시립교향악단 5개 팀과 시립합창단 2개 팀 등 총 80명의 단원이 7개 팀을 꾸려 모두 18회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청호·자유·동부시장 등 다중집합장소 6개소와 신안 인스빌·대성 천년 나무 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2개소, 전남도청·전남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목포해양수산청·목포세무서·목포교육지원청 등 관내 주요 관공서 10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복콘서트는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을 탈피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영화·음악과 7080노래를 위주로 선



목포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80명으로 7개 팀을 꾸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지역 관공서 등을 찾아 시민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펼친다. 목포시청 로비 콘서트 모습. <목포시 제공>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호성 목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예술 공연을 접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희망의 바다 만들기

감성돔 치어 방류

목포수협, 북항에13만마리

목포수협이 최근 목포 북항 일대에서 수산종묘방류행사와 해양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수협 임직원과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감성돔 치어 13만여마리를 북항에 방류하고, 북항 일대와 고하도 지역 일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바다 정화 활동도 펼쳤다.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은 각종 개발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바다환경 훼손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업인 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터, 국민들에게는 안정된 식량공급처, 국가에는 미래 국부창출 기반으로서의 희망찬 바다를 만들자는 뜻을 담아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이 중심이 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다환경 보전활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바다자원 보존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의 동력이 되는 현안사업이므로 조합원들이 솔선수범해 바다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시민안전보험 다음달 시행

사고 시 최대 1000만원 지원

목포시가 23만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목포시는 일상 속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정신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최홍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2018년 말 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 보험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3131명)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누구든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부동산 투자 !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선규 H.010-3605-5000